만중생에 한마음으로 응하면 자유인



그림 · 최주현

☞ 17면에서 계속

배출되면은, 그 불바퀴는 아까 얘기했죠. 자석에 모두 붙는다고요. 크니깐 다 불어서 하나로 돌아가면서 바로 법바퀴가 전력을 빼서 쓰듯이 우리가 그렇게 빼서 바로 생산을 내는 거죠. 멸하고 생산되고 멸하고 생산되고 이러죠. 이게 인간 살아나가는 작용이죠, 바로.

이런 진리를 탐구할 생각은 안하고, 그러고 가정에 살림살이 속에 부처가 있고 법신이 있고 화신이 있어서 모든 일을 해내는 데도, 일체 만법을 다 들이고 내고 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항상 자기 집은 주인이 없이 비워놓고 남한테 다가 기대고, 물질에 기대고, 이름에 기대고, 그저 여기 가서 빌고 저기 가서 빌고, 또 그뿐인가, 요기다 놓지 않아서 우리 남편이 어떻게 되면 어쩌나? 저기다 놓지 않았으니 어쩌나 그러고는 그 땀으로 뭉쳐진 종이짝 몇 개 가지고 빌면서 안 놓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인간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진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작업을 해야 하는 데도 여러분은 그렇게 끄달리면서 종교를 믿는 것마저도 편안치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니 어떻게 종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난 여러분한테 무슨 석달 열흘 기도를 드려라, 인등을 켜라, 뭘 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여러분은 또 생각할 게 있습니다. 절대 팔자 운명이 없다, 따로 없다, 내 생각에 의해서 팔자 운명이 붙는 거다, 시간과 공간이 없이 돌아가는데, 공했는데 팔자 운명 붙을 자리가 어디 있으며, 유전성 붙을 자리가 어디 있으며, 병 붙을 자리가 어디 있으며, 가난 붙을 자리가 어디 있으며, 우환 붙을 자리가 어디 있으며 날짜를 정해서 가지 않으면은 무슨 사고가 일어난다는 게 어디 있나,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할 수 있는 패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불자며 인간입니까?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보겠습니까? 어떻게 부처라고 하겠습니까?

보십시오. 저도 달을 하다 보니까 침이 말라서 이 물을 먹어야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목이 마르면 아니, 목이 말라서가 아니라 생활하는 데에 배가 고픈 일이 너무도 많고 애처로운 일이 너무도 많고, 쓰라린 일이 너무도 많고 터무니없는 일이 너무도 많고, 사시는 데에 천차만별로 닥치는 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못하는 비밀도 많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친구한테 그런 건 털어놓을 수 있어도 정말 자식한테는 털어놓을 수 없고 부모한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사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주인이 없다면 어떠한 거든지 커버해 나갈 수도 없으며 몸 안에서 병이 들어도 커버해 나갈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일 수 없는 그런 까닭이 바로, 이 속에 중생들이 자기와 더불어 한마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한 몸, 한마음 말입니다. 내 마음을 그렇게 한마음으로 문을 열어주니까 거기서 생각할 때에 둘이 아니라는데 그걸 알게 되자 바로 세포가 죽어가는 것도 살아나게끔 작동을 하죠.

여러분이 마음으로서 자기를 끌고 다니는 주인공을 진실히 믿고 거기에 맡기고, 한마음 속에서 병이 난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뭐든지 거기다 맡기고, 자기는 편안한 마음으로 몸을 부지런히 움죽거린다면 그게 바로 시자죠. 주인의 심부름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부처님 앞에 가서 빌기만 하면 부처님이 그냥 봐줄 거라고 생각하진 마세요.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다보면은 나를 발견하고, 첫째는 나를 발견해야 하기 때문에 주인공에다 믿고 다 맡겨야 하고, 그 다음에는 밝게 나를 발견했을 때는 바로 둘이 아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 맡겨야 합니다. 나는 견성했다고 고개를 탁 들고 내가 나라고 이렇게 한다면 둘이 아닌 도리 공부는 글렀죠. 그러고 미해지죠. 세 번 째는, 둘이 아닌 걸 알았으면 아까도 얘기했죠, 둘이 아닌 그 도리를 알았으면 고 다음에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듯이, 개구리가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 개구리가 되고, 한마음으로 응해주고, 가난한 사람이 달래든 못생긴 사람이 달래든 잘생긴 사람이 달래든, 부자가 달래든, 새가 달래든 곤충이 달래든 짐승이 달래든, 아무런 말없이 그저 그대로 돼주는, 그렇게 돼줄라니까 적으면 적은 대로 내가 적어져야 똑같이 되죠? 그러니까 건져 주죠.

그래서 어느 때에 부처님이 뭐가 됐을 때에 부처라고 할까? 사람이 됐을 때 부처라고 할까? 그래서 '부처라고 할 수 없는 게 부처다' 라는 얘깁니다. 한말 되하고 한말 되하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주인이 없다면 안 되기 때문에 실천을 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찾아오면 거기서 할 수밖에 없으니 거기다 맡기라고 하지 기도를 하라 뭐 정성을 들여라 이럽디까?

모두를 모를 때의 내 모습

내 형제, 내 자식, 내 부모로 생각해야…

그것이 바로 성불이며 열반이며 구경경지에 이르러서 앞뒤가 없는 불바퀴를 넘어 참으로 영원한 밝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지입니다. 그래서 그 경지를 얻는다면 바로 평등공법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는 칠보황궁공법에 해당이 되고, 고 다음에는 팔수레공법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정말 도리천의 자유인으로서, 도리천하면 모두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평발, 평손, 평눈이 하는 것이 다 종합된 그런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그 자유인이 바로 부처자 신이죠. 여러분이 그냥 보통 불러도 自神이러죠.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자신이 있는데 왜 타신을 믿습니까? 자신부터 알아야 타신도 둘이 아니라는 걸 알죠. 그래서 내 집부터 전화통을 놔야 남의 집에 전화도 할 수 있고 전화가 올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냥 법당에 음식을 올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항상 방편으로 말했습니다. 찰떡을 둥그렇게 만들어서 올리면 그 떡 한 그릇이 전체를 먹이고도 되 남는다는 뜻을 아시라고 말입니다. 내 조상 따로 있고 부처 따로 있고 중생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 법당에 올라가시면 마음으로 부처든 나든 조상이든 중생이든 할 것 없이 그냥 둥글려서 지극하게 삼배 올리면, 백팔 배를 해도 한 새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북하면 달마대사께서 양무제더러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약사발을 안겨서 죽일 건 뒤 있습니까. 죽은 몸이 없어진 뒤에도 짚세기 한 짝은 거기 두고 짚세기 한 짝은 주장자 끝에 턱 메고서, 즉 말하자면은 사신으로 보냈던 사람이 오는 도중에 만나게 만들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죽어서 없어졌는데도 그 모습을 다시 해 가지고 양무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보였으니 어떻습니까? 어버이의 마음은 죽으나 사나, 지금 부처님께서 내내 가르치고 지금도 살아 계신, 여러분이 살아 계신 것이 바로 부처님이 살아 계신 것이니까요. 부처님이 삼천 년 전에 열반한 게 아닙니다. 사대가 흩어졌을 뿐이고, 그 분이 바로 여러분이니까요. 그 뜻을 아실 거예요. 언젠가는요.

> 가정 살림살이 속에도
> 부처 · 법신 · 화신 있어
> 일체만법 들이고 내

그러니까 법당에 가시면은 마음을 둥글려서, 물질이든 형상이든 공부를 하게 되면 진짜 부처라는 걸 알게 돼요. 모셔놓은 부처님을 처음에 공부할 때는 내 마음 가운데 한데 굴리세요, 둘이 아니게. 그러다 보면 아하! 방편으로 모셔놓았지만 진짜 부처라는 걸 알게 돼요. 진짜 부처니까요.

우리가 밥 먹고 배설하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 생각 잘하고 소화를 잘 시킨다면, 이런 소리나 똑같은 얘깁니다. 한번 생각 잘하면 먹는 것이고, 한번 생각 잘했으면 소화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먹고 소화 못시키면 체합니다.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지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불교가 있는 거지, 여러분 빼놓고 불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빼놓고 부처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부처가 어디 있는지 봤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바로 부처를 보고 믿게 되고 듣고 보고 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물질 세계에서 관습에 젖어서 기복에 젖어서 그렇게 산다면 요다음에 몸 속에 인과응보로서 뭉쳐진 것이 수없이 늘어나 가지고, 내가 죽은 뒤에 턱 하니 나와서 살아있는데도 수없이 자꾸 파워를 일으키고 용도에 따라서 자꾸 입력돼서 나오는데 죽어서도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면서 요만한 벌레도 크게 돼 가지곤 그냥 눈에 다 보이면은 한 발짝도 못 들어서요. 자기가 인연지은 대로 나오는 거니까 머리 풀어 산발을 하고 나오기도 하고, 벌레, 독사로 나오기도 하죠. 아, 그렇게 나와서 늘비하게 늘어져 있으니 그 길밖에 없는데 한 발짝이나 떼어놓을 수 있겠어요. 그거 이해가 안 가시죠? 그게 일 단계예요.

이 단계는 뭐냐?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하죠? 그것도 뛰어넘는 거지만 일 단계에도 마음으로 뛰어넘으면 될 것을 내가 의식으로 항상 물질로 관습이 됐기 때문에 젖은 거죠. 그래서 배가 와야 건너가지 그냥 어떻게 건너갈 수 있나, 빠져죽지 하는 생각으로 영혼들이 주욱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때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나 카톨릭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고 불교에서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저 언덕을 넘어가자' 하는 거죠. 그러니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내 모습이 그대로 있는 줄 알고 죽어서도 배가 올 때를 기다리니 5백 생을 기다리면 옵니까? 그러니 천도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이 요새 그런 도리를 배우니깐 좀 아시겠지마는 옛날에 돌아가신 분들은 그런 걸 몰라서 일일이 따지고 덤비고 그냥 먹으려고 했던 거죠.

하여튼 우리가 인연이 돼서 이렇게 지원을 내게 된 것을 감사히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더불어 한마음으로 내 몸 속에 있는 중생들을 다 천백억화신 보살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하며, 둘째는 그렇게 해야만이 건강도 되찾을 수 있고, 가난도 소멸할 수 있고, 또 돌 듯하면서도 안 되는 가환도 다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입력된 것을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한마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만….

※위 법문은 1991년 8월 11일 울산지원 개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범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세심사 신나는 여름불교 숲속학교

◈일 정 : 8월 18일 ~ 8월 20일 (2박 3일)
◈인 원 : 선착순 100명
◈대 상 : 초등학생
◈교육내용 : 사찰예절, 숲길산책, 캠프파이어, 발우공양
◈신청기간 : 7월 20일 ~ 7월 30일
◈접 수 처 : 041)543-2696 533-9993
◈장 소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산양리 220 세심사
◈준 비 물 : 필기구, 세면도구, 운동화, 침낭(이불)
◈신청에서 지급품 : 수련교재, T셔츠 증정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 마곡사 말사 세심사(洗心寺)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에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영가천도 「책자 무료보급」
인간의 길흉회복을 좌우하는 영가의 영향력!
인간의 고통중에서 절반이상이 영가의 장애로부터 온다!
가정불화, 사업부진, 자녀문제, 불의의 사고나 재난등 이중에서 50 ~ 60% 이상이 영가의 영향에서부터 온다.
"100% 영가천도 영험도량"

책 자 내 용

머리글

제 1장 영가의 실체.
1. 영가천도에 대하여
2. 영가(고혼) 천도의 의미
3. 영가란 무엇인가?
4. 착신현상이란 무엇인가?
5. 영가의 장애와 천도의 필요성

제 2장 천도재에 대하여...
1. 영가천도와 업장소멸.
2. 영가천도의 공덕.
3. 천도재와 위령제의 차이.
4. 수자령영가에 대하여.
5. 효행중의 효행.
6. 지장보살의 시대.
7. 천도재 법문.

제 3장 영가천도로 안락한 삶을 영위하다.
● 영가가 천도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사례.
● 영가가 착신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 천도재를 지낸 분들의 체험수기.

그밖에 여러 사례들 - 영가천도 책자 참조 -

100%의 확실한 영가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전국에 조상령 혹은 수자령 영가가 천도가 안되어 이로인해 고통을 받고있는 이들이 상당 수에 이른다.
영가천도를 했는데도 영가의 장애라고 느끼거나 삶의 변화는 별로 없다고 하소연하는 불자가 늘고 있다. 「미륵이 출세할때까지 중생들을 모두 해탈시켜서 영원히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도록 하리라!」 - 지장경 중에서 -

매월 합동 천도재 봉행, 천도재상담 전화 및 무료책자 신청

대한불교 조계종 지장도량 성거사
천안시 목천읍 송전리 283번지
041)567-6820, 567-6822

음양체형관리 자원봉사자 모집

서울 서초구 소재 보현정사(주지 보현스님)에서는 현대의 선 · 후천성 기형, 비만, 체형의 변화에서오는 병상증들이 음양체형관리에 의하여 건강을 되찾고 체력, 활력이 개선되는 것을 체험하고 자기 자신과 가족의 건강은 물론 양로원, 장애인, 고아원 등의 소외된 국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여 스님의 수행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음양체형관리에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주)음양피부체형연구회 홈페이지 www.skin-reform co.kr(com)/음양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 육 안 내

▶ 모집기간 : 수시모집
▶ 교육기간 : 매주 수요일
오전반 AM 10 ~ PM 12시 30분
오후반 AM 7 ~ PM 9시 30분
▶ 교 육 비 : 보현정사 추천에 의하여 무료교육
▶ 교육장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9-4 진솔빌딩 B1 (주)음양피부체형연구회
▶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직장재직증명서1통 (전업주부아닌 경우)
▶ 상담 및 문의처

보현정사 포교원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6-7호 이화빌딩 5F
전화번호 : 02)583-1080, 02)521-1415
H · P : 016)321-1080

※ 현 피부미용이나 비만 체형관리실 운영하는 분은 제외